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은기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일본 츠바사회(翼會) 회장단 방한



일본 항공자위대 예비역 단체인 츠바사회 SAITO HARUKAZU 회장(예 대장, 전 일본 항공막료장) 등 10명의 회장단 일행이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 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공군전우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4년 한일 공군 예비역 단체간 체결된 협정서에 의거 이루어진 상호방문행사 일환으로 2004년도에 최

초로 한국측에서 행사를 주관한 후 상호교대로 연 1회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이루어진 이번 츠바사회 방한은 한국측에서 8번째 주관하는 행사로 방한중 제1일인 10월 16일에는 한국에 도착한 후 및 주한 일본대사관 방문과 청와대를 관람했다.

제2일인 17일에는 서울 ADEX 23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국우주 전시관과 야외전

시장 및 주요 방산업체 부스를 관람했다. 그리고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환영만찬회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전우회 부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축사/답사, 기념패/선물교환 및 환담시간 등을 가졌다.

제3일에는 강구영 KAI 사장 및 정상화 참모총장과 의 별도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RTX 방문 후 오산기지를 방문하여 현황정

취, 작전사령관 주관 오찬과 우주작전상황실 및 기지견학을 했다.

제4일에는 판문점에 도착하여 공동경비구역을 견학 후 출국함으로써 모든 방한 일정을 마쳤으며, 이번 일본 츠바사회 회장단 방한이 양국 공군 예비역 단체간 유대강화는 물론 상호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9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거행됐다.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지키겠다는 우리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또 적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국제사회에는 평화를 지지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시간이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행사에는 장병, 군 가족, 예비역, 보훈 단체, 참관 신청 국민 등 1만여 명이 함께했고,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에 부합한 초청 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장비부대 분열에서 행사는 절정을 이뤘다. 다영역 동시 통합전투가 가능한 우리 국

군의 미래전 핵심전력이 모습을 드러내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큰 환호를 보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성하는 무인수상정·항공기·잠수정을 필두로 한국형 무인정찰기, 소형 드론제대, 아미타이거 제대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큰축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포함한 기계화·포병·방호·상륙제대들이 그 위용을 뽐냈다. 그중에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체계 장비들도 포함됐다.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패트리엇·천공과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실물도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만 이날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아파치 헬기 편대의 고난도 기동은 취소됐다.//



2023 안보현장 견학



본회 김은기 회장은 9월 21일 중앙회 임원/회원 및 전국지부/지회 임원 등 130명을 초청하여 사천지역안보현장을 견학했다.

견학단 일행은 먼저 사천지구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참석한 후, 이어(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하여 KAI홍보영상 시청, 강구영 사장의 환영사와 김은기 회장의 격려사, 방문기념패와 기념품교환 및 항공기 생산시설을 관람한 후 오찬을 함께했

다. 오후에는 삼천포대교 공원에 설치된 케이틀 카를 타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기 회장은 KAI 방문 격려사에서 "KAI가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인 최첨단 항공우주체계종합업체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향후 공군의 전력증강사업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행사



공군전우회와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제3훈련비행단이 주관하며 사천시가 후원한 사천지구 공군호국영령추모행사가 9월 21일 3훈비 역사전시장내 위령비 앞에서 개최됐다.

공군안보현장견학과 연계하여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공군전우회원 130명과 3훈비 장병 및 사천시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가, 조총발사 및 묵념,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순으로 진행됐다.

본회 김은기 회장은 추모사에서 "호국영령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를 새삼스럽게 다져야 할 것

이며,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항공우주력발전에 접목시켜 세계 최첨단의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위령비는 6·25전쟁 시부터 '62년 9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 임무 및 훈련중 호국의 녀트로 산화한 고 김영환 장군 등 45인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62년 6월 건립되었다.//

윤종상 회원에 자랑스런공군인상 전달

본회 김은기 회장은 8월 3일 윤종상(예상사, 병3기, 92세)원로회원에겐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공군인상을 윤회원의 자택에서 전수했다.

윤 회원은 공군 창군 일원으로 초창기에 어려운 상황하에서 6·25전쟁을 맞아 군사 첩보전 최일선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혁혁한 전공을 세운 6·25 참전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전역후에도 공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회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등 모든 공군인들의 표상이 되어 자랑스런공군인상을 특별히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전수식에서도 윤 회원은 전우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



246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9월 1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246기 공군부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김예찬 하사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부사관 224명은 약 3개월간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정예 부사관으로 거듭났다.

행사는 수료증 및 상장수여, 임관사령장과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 및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순으로 진행됐다.//



골프동호회 총무단 회의

본회 산하 골프동호회(회장 이강욱)는 10월 4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각 특기별, 신분별로 구성된 동호회 단체 총무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단 회의 및 친선운동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동호회장 인사말, 단체별 회원변동현황 정비지침과 내년도에 적용할 골프팁 수 조정안 및 금년도(제21회)친선골프대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골프대회 추진위원단 선임, 소요경비 염출안, 경기방법과 수상자 선정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회장은 "11월 8일 수원



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개최되는 친선골프대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모든 단체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군항공과학고 총동창회, 양해각서 체결 및 장병위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총동창회는 7월 24일 주한미군전우회와 용산전쟁기념관 및 주한미군전우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양자의 발전 및 상호홍보활동에 기여하고 한미동맹지지를 위해 상호노력하자는 사항이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공군5공중기동비행단(5비)을 방문해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진홍 항과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부대 지휘부와 환담을 나눴다. 이후 데저트플래그(Desert Flag)와 레드플래그(Red Flag) 등 해외 연합훈련에서 성

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5비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회장은 "해외 교민과 구호물품 공수,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등 5비는 외교·보훈·작전 등 모든 분야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공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행단의 장병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복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사관전우회(원우회), 부대위문 및 정기총회

공군부사관전우회(회장 차주성)은 7월 13일 회원 13명이 제6회 등반대회 및 공군제8930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지휘관 참모와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8월 12일에는 충북 오송읍에서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상, 경과보고, 감사보고 및 안전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0월 5일 청주기지 체력단련장에



서 회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부사관전우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공사 총동창회, 당구대회 개최



공사 총동창회(회장 정경두)는 8월 26일 제1회 공사총동창회 당구대회를 현대당구장에서 개최했다.

당구대회 참가 선수는 19기부터 47기까지 56명의 선수들과 응원동문, 행사진행요원 등 총 73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3구 우승은 27기 박신규, 32기 박동성조가, 준우승은 25기 최미락, 32기 박배조조가 차지하였으며, 4구 우승은 21기 민병홍, 23기 박성순조가 준우승은 32기 이형길, 35기 김지식조가 차지했다.

또한, 하이런상(3구 시합시 한번에 연달아서 가장 많이 친 사람)은 26기 윤병학, 27기 최정근 동문이 차지했다.//

공군학사장교골프회, 순조회에 성금 전달



공군학사장교골프동호회(회장 황태인) 임원진은 7월 20일 공군호텔에서 공군순직조중사부인회 (이하 순조회)임원진 3명을 초청하여 환담을 나누고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20일 개최한 공군사랑 자체 골프대회에서 조성한 모금액을 순조회 회원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했다. 황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순조회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송우영 순조회장은 “순조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군사랑회, 대한적십자사에 수해성금 500만원 전달



공군사랑회(회장 서용길)는 8월28일 대한적십자사에 수재의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서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6명과 여성분과 임원 2명도 함께 참석했다. 공군사랑회는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박영민 회원, '체육발전부문' 공헌대상 수상



박영민(예 중위, 학사 53기, 공군전우회 전 골프동호회장)회원이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선정하여 KNS뉴스통신, 장애인문화신문이 주최하고, (재)국제언론인클럽, (사)서울경제연합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 선정되어 본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한다.

박 회원은 그간 여자 골프 선수 1. 이종임 프로 (세계대학생골프대회 대한민국 최초 우승 / 아시아게임 단체전 우승) 2. 이지희 프로 (JLPGA 13회 우승 / KLPGA 대상 수상) 3. 유소연 프로 (전, LPGA 세계 1위) 4. 정일미 프로(KLPGA 대회 다수 우승) 5. 고진영 프로(세계 랭킹1위 최장 보유 / 세계기록 진행 중) 6. 김세영 프로 (LPGA 2015년 신인왕 / KLPGA 우승 다수)등을 길러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골프 역사의 중심”에 선 박영민 교수의 발자취를 높이 평가하여 ‘체육발전 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안호원 회원,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수상



본회 안호원 회원이 8월 25일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 한국인으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사)도전한 국민본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을 수상했다.

안 회원은 2014년부터 6·25전쟁 격전지 충훈탐을 순회하며 호국영령들의 추도식을 주관하는 한편,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고엽제 전우들과 지역사회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50년간 실천해온 사회복지가 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고엽제 전우들을 초청하여 삼계탕을 대접하고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50년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경비행기 조종사, 교사 자격증 4개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28개 소유한 자로 끊임없는 ‘도전 한국인’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기네스북(기록인증)에 등재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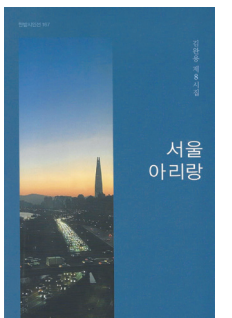
김완용 회원, 제8시집 '서울 아리랑' 발간

본회 김완용(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회원이 7월25일 본인의 제8시집 '서울 아리랑'을 발간했다.

이시집은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서울 아리랑'이라는 표제 아래 편마다 부제를 달아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 까지 저자가 겪은 서울의 기억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 회원은 36년2개월의 군 생활 중에도 문학에 조예가 깊어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충효백일장 일반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시 부문에서 다수의 입상을 하였으며, 전역 후 62세에 만학도로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여 문학을 전공한 후 현재 (사)한국공무원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회원은 그간 “들녘에 부는 바람”, “그리움은 쪽배 타고”, “봄빛 여울” 등 7편의 시집에 이어 제8시집을 발간했다.//



공군, 전반기 지휘관회의



공군은 7월12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공군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공군본부 주요 지휘관·참모들은 현장에 참석했고, 타지역 독립전대급 이상 지휘관들은 대비태세 유지와 임무수행을 위해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는 △지난 7월3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의 내용 요약 전파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관련 업무 추진현황 발표·토의 △전력증강 방향 토의 △비행교육 최적화 및 발전계획 등에 관한 특별보고·토의 △예하부대 애로·건의사항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방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공군 추진 현황 발표를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2023 우주·미사일방어 전략포럼



공군이 우주를 활용해 잠재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를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등 기술 발전을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군은 10월19일 서울공항에서 '2023 우주·미사일방어 전략포럼'을 열고 항공우주력 발전에 따른 미래 공군의 계획을 밝혔다.

공군과 한국방위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포럼은 '항공우주력 발전에 기반한 한국형 3축체계의 강화방향'을 주제로 열렸

다.포럼에는 공군과 우주·미사일방어 및 방위산업 분야 민·관·군·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난해 5월 처음 개최됐다.

올해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과 연계해 시행됐다.포럼 참가자들은 우주·미사일방어 분야에서 다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과 전략적 발전방향, 우주영역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공군군수사령부(군수사)가 주관한 2023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세미나가 공군호텔에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공군 관계자들과 김형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연구본부장 등 국내외 항공기술, 항공전자·소프트웨어 분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첫날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이헌승(전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7일 진행된 항공기술 분과 발표에서는 '위험도 평가 기반의 무인체계 안전관리'를 주제로 5명의 발표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8일에는 '해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통제 강화 관련 공군 항공 소프트웨어 대응전략'을 주제로 4명의 발표자가 레이더·전자전 기술·KF-21 소프트웨어 기술 등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제3회 공군대학 학술세미나

공군대학은 9월12일 자운대 총무관 대강당에서 '제3회 공군대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발전과 항공우주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공사), 미 7공군사령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 KAIST, 충남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라이언 키니(준장) 미 7공군 부사령관과 임상민 방위사업청 박사는 주제 발표를 맡았다. 키니 부사령관은 미군의 무인기 운용 개념 및 사례를 발표하고, 임 박사는 국내



의 유·무인 체계 개발 동향을 소개하며 향후 해당 체계의 운용과 임무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현주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 시간에는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연구 내용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전개 한미 연합공중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합연습기간중 한미가 전사의 방패(WS·Warrior Shield) 야외기동훈련(FTX)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켰다.

한미 공군은 8월30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해 상공에서 이뤄진 훈련에는 우리 공군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투입됐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8월 24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 미 전략자산을 적시

적으로 조율해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1B 전략폭격기는 한 번의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최대속도는 마하 1.2(시속 1468km)로 B-52(마하 0.78, 시속 957km), B-2(마하 0.9, 시속1100km)보다 빨라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한미 공군, 연합 공대공·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

한미 공군은 8월 31일 F-35A 스텔스전투기 등 항공기 20여 대를 동원한 연합 공대공·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으로 '2023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미 공군은 이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전투사) 주관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을 했다"며 "9월1일까지 공대공·공대지 무장 30여 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RF-16, F-5, F-4E 전투기와 미 7공군 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등이 투입됐다.//